

축산폐기물 관리법 6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지난 '87년 4월 1일 공포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중 축산폐기물 관리법을 6월 1일부로 실시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규모는 ▷돈사 500㎡ 이상 1,400㎡미만(단 특별 청소지역은 250㎡ 이상 700㎡ 미만)▷우사는 100㎡ 이상 1,200㎡ 미만(단 특별청소지역은 350㎡이상 600㎡ 미만)▷마사는 1,000㎡ 이상 1,200㎡ 미만(단 특별청소지역은 500㎡ 이상 600㎡ 미만)▷가금사는 1,000㎡ 이상(단 특별청소지역은 500㎡ 이상)이며, 방류수 수질은 BOD 2,000~2,500 PPM이다.

따라서 위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환경청은 축산농가들이 쉽게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작성하여 곧 발표할 예정이다.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돈육소비 범국민운동 자전거 캠페인 전개키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돈육소비운동 추진위원회에서는 1988년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28일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돈육소비 범국민운동 자전거 캠페인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양돈불황을 타개하고 전국민이 경제적이고 영양가 높은 돈육을 많이 소비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도모하자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돈육소비 자전거 캠페인 행사의 전국순회 지역은 서울—이천—충주—상주—김천—대구—부산—진해—진주—하동—순천—장흥—목포—무안—나주—광주—전주—천안—평택—수원—과천을 경유하여 건국대학교에서 해산을 하게 되며, 총 구간거리는 1만 1천 5백 4km이다.

또한 자전거 캠페인행사의 고문은 본회 전동용 회장, 지도교수는 박홍양 교수로 결정되었다.

본회는 이 행사기간동안 수십만부의 돈육소비 홍보 전단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이 행사를 적극 후원키로 했다.

대만 양돈정책 시찰단 6월 12일 출국

대만의 양돈지원정책(수출지원정책) 및 제도·법규 등을 조사, 연구하기 위한 대만 양돈정책 시찰단이 6월 12일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출국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원태 박사, 양돈협회 이일형 지도과장, 그리고 농림수산부 중소가축과 관계관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은 대만의 양돈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대만의 돈육수출지원정책 등을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정부, 사료관세 5%에서 2%로 인하 검토

나용배 경제기획원 장관은 지난 5월 16일에 농민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현행 수입사료에 대한 관세를 5%에서 2%로 인하 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 부총리는 국회에서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토의를 가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생산자 단체 대표들은 ▷쇠고기 및 농산물 수입이 불가피할 경우 농축산 업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 ▷수입을 생산자 단체에 일임 ▷수입사료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면세조치 ▷가격안정대의 하한선을 검토선보다 높여 줄 것등을 요구했다.

중공, 육류생산 전년도보다 20만톤 증가

곡물부족으로 돈육은 줄어

중공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1987년도 중공의 돈육생산량은 전년도보다 36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공의 총 육류 생산량도 전년도보다 20만톤 증가한 2천 1백30만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육류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 84%, 쇠고기 3%, 양고기 5%, 닭고기 8%이다.

이와같이 중공의 육류소비 중 80%를 차지하는 돼지고기의 생산이 줄어들어 돈육 수요의 초과로 인한 사료용 곡물의 배정 제한, 사료업계의 곡물구매 기간을 여름철 이후의 곡물 수확시기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사료공장의 저장시설 부족 및 자금압박에서 사료생산이 원활하지 못한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중공은 사료곡물 생산이 소비증가를 미처 따라가지 못한 관계로 농산물 증산계획과 금년도에는 초식가축 고기 생산을 전체 육류의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 5.6% 인상

축협중앙회는 배합사료 가격을 지난 5월 16일부로 평균 5% 인상했다.

축협은 국제곡물 가격 중 주원료(옥수수·소맥)와 부원료(어분, 대두박 등)의 가격상승

과 또한 국내의 내부적인 유통상의 요인에 의해 사료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축종별 인상내역은 양돈용 5.6%, 양계용 5.7%, 유우용 4.7%, 비육우용 4.5%, 기타 5% 등이다.

양돈용 사료의 경우 젓먹이돼지는 종전 4,340 원에서 380원 오른 4,720원으로, 육성돈은 종전 3,680원에서 180원 인상되어 3,860원이 되었다.

기타 양돈용 배합사료의 인상된 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축협의 양돈용 배합사료 인상

1988. 5.16 (단위 원%)

품 목	종전가격	인상가격	인상율	비고
갓 난 돼 지	7,070	7,640	8.1	
젓 먹 이 돼 지	4,340	4,720	8.1	
젓 멘 돼 지	—	4,560	—	
육 성 돈	3,680	3,860	5.9	
비 육 돈 전 기	3,380	3,550	5.0	
비 육 돈 후 기	3,280	3,440	4.9	
임 신 돈	3,260	3,420	4.9	
포 유 돈	3,570	3,750	5.0	
후 보 종 돈	—	—	—	
중 돈	3,230	3,390	5.9	
평 균			5.6%	

국제사료연합회 (IFIF) 발족

국제협력으로 사료산업 성장 도모

미국에서 발간되는 World Grain지에 의하면 오늘날의 세계배합사료 산업은 연간 4억 5천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양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축산물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료산업의 성장

과 전세계의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제사료연합회(International Feed Industry Federation : IFIF)를 발족시켰다.

돼지 위생연구회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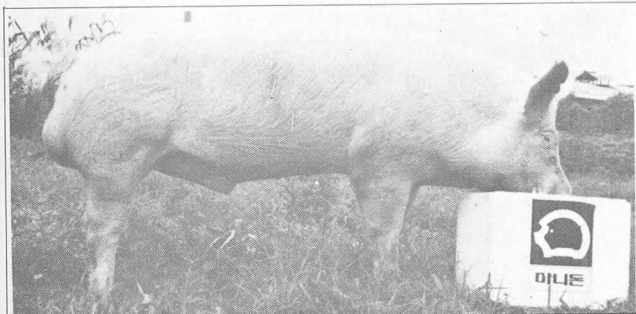
경북지역 양돈장 및 제약·사료회사 양돈관련 수의사들의 모임인 돼지위생연구회가 5월 14일 대구 뉴영남호텔 대연회장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돼지위생연구회는 창립총회에서 이진부씨

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했으며, 경북대 김봉환 교수와 가축위생연구소의 안수환 병독과장을 자문위원으로, 학술편집장에 박창수씨를 위촉했다.

또 돼지위생연구소는 경북지역(지회장 : 박태수)외에 지역간 협조체계·유지를 위해 서울지회(지회장 : 정병용)와 경남지회(지회장 : 주갑성)를 두기로 하고, 매월 지역별로 1회씩 주제발표를 하고 분기별로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마니돈은 불황기에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공인능력검정소 최우수돈 최다수상 기록보유 (총 15회)

마니돈은 정기적인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가장 확실한, 건강한 종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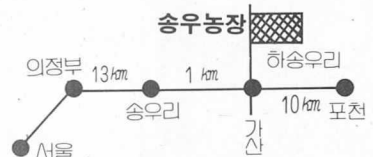
분양종 : A라인 (D), C라인 (Y), D라인 (L), PS. (F₁)



전문육종회사 마니돈종의 걸작품 마니돈은 불황을 극복하는 확실한 선택입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육종계획, 정확한 검정시스템 (전산화), 마니맨의 정성스런 A/S는 선택된 고객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뛰어난 고능력
확실한 능력의 인정성
한국환경에 적합한 강건성**



농장 :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80
전화 : (0357) 32-1103